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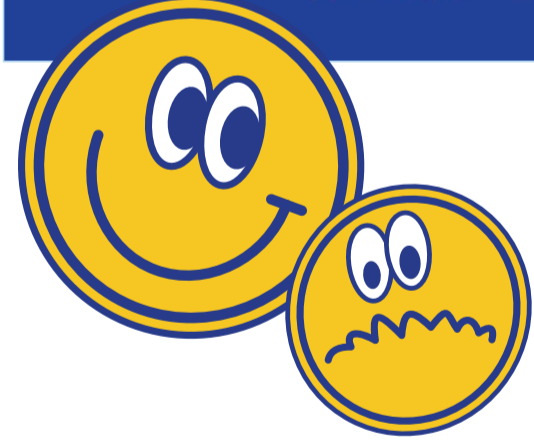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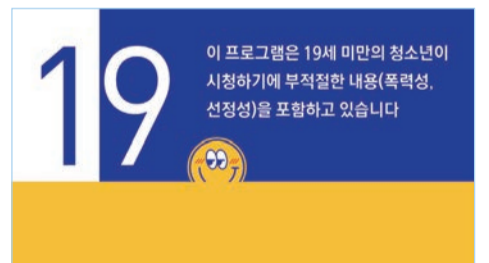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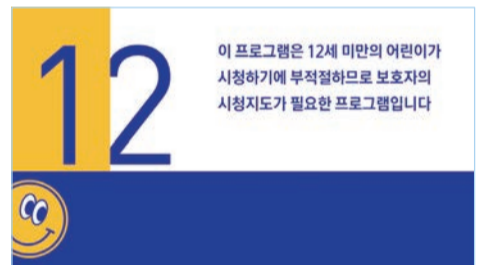


채널A 방송에 스마일이 배꼽... 개국 10주년 기념 스마일 캐릭터 론칭

6월 26일 방송에서 첫 선...스마일 캐릭터 이용한 온·오프라인 프로젝트 곧 가동



도시어부3 오늘 밤 10시 30분



금쪽같은 내새끼 오늘 저녁 8시



동그란 얼굴에 미소를 가득 담은 '스마일' 캐릭터가 채널A에 뒀다. 이 캐릭터는 채널A 운행물(채널의 정체성을 전달하기 위한 영상과 이미지) 속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배꼽 모습을 드러내 시청자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채널A 개국 10주년 프로젝트로 탄생한 엠블럼 '스마일'이 지난 6월 26일부터 방송되고 있는 것이다.

채널A 10주년 프로젝트의 키 콘셉트인 '스마일'에는 코로나19가 찾아온 우리 사회의 웃음을 되찾자는 의미가 담겨있다. '스마일'은 채널A가 지난 10년 간 지

향해 온 가치와도 맞닿아 있다.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감동으로 시청자에게 흐뭇한 웃음을 전하는 따뜻한 콘텐츠를 만들고자 했던 채널A 구성원들의 모습이 녹아있다. '스마일'은 커다란 눈동자로 다양한 시선 처리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 단조로운 기존의 스마일 형태를 벗어나 젊고 트렌디한 스타일의 스마일로 차별화했다. 19세 연령고지 운행물에서는 '스마일'이 숫자 19를 바라보며 게슴츠레한 눈빛으로 발그레 얼굴을 붉힌다. 스마일의 역동적인 움

직임을 통해 스마일에서 느낄 수 있는 유쾌함과 즐거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한 것이다.

스마일의 컬러를 반영한 운행물 개편도 이뤄졌다. 기존 운행물에 적용했던 장르별 컬러를 없애고 스마일의 메인 컬러인 노랑과 남색을 적용해 스마일과의 일치감을 높였다. 채널A B&C는 향후 채널A 프로그램의 특성을 '스마일' 캐릭터에 녹여 다양한 형태로 '스마일'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일'은 앞으로 구체적인 네이밍과 흥미로운 스

토리라인을 갖고 시청자와의 접촉을 더 늘려나갈 예정이다. 채널A 편성전략본부 주도로 각 실·국·본부가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스마일'의 취지가 담긴 채널A 오리지널 콘텐츠도 기획 중이다. 채널A 구성원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

채널A B&C 비주얼브랜딩팀 유지상
편집국 정치부 조아라

동아일보 유료부수 5년 연속 2위

스포츠동아, 어린이동아는
스포츠지, 어린이신문 부문에서 각각 1위

동아일보가 한국ABC협회(회장 이성준)의 유료 부수 인증 결과 5년 연속 국내 일간지 가운데 2위를 기록했다. ABC협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2021년도(2020년 기준) 국내 매체 25개사의 유료부수 인증 결과를 6월 11일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ABC협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아일보의 발행부수는 84만2100부로, 유료부수는 70만5198부였다. 동아미디어그룹 매체인 스포츠동아와 어린이동아는 스포츠신문, 어린이신문 가운데 각각 1위를 차지했다.

3450부로 뒤를 이었다. 어린이동아의 유료부수는 4만8385부로 3만4041부인 어린이조선일보 대비 월등히 앞섰다. 어린이지 분야에서 5년 연속 1위 기록이다.

ABC협회는 일간지의 발행부수와 유료부수를 직접 조사해 집계하는 국내 유일의 공인기관이다. 이번 인증 실사는 종합편성채널, 케이블TV를 겸영하는 일간신문 25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전문 공사원들이 2월부터 5월까지 직접 본사와 독자센터를 방문해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매지들도 각 부분 1위 매체로 확고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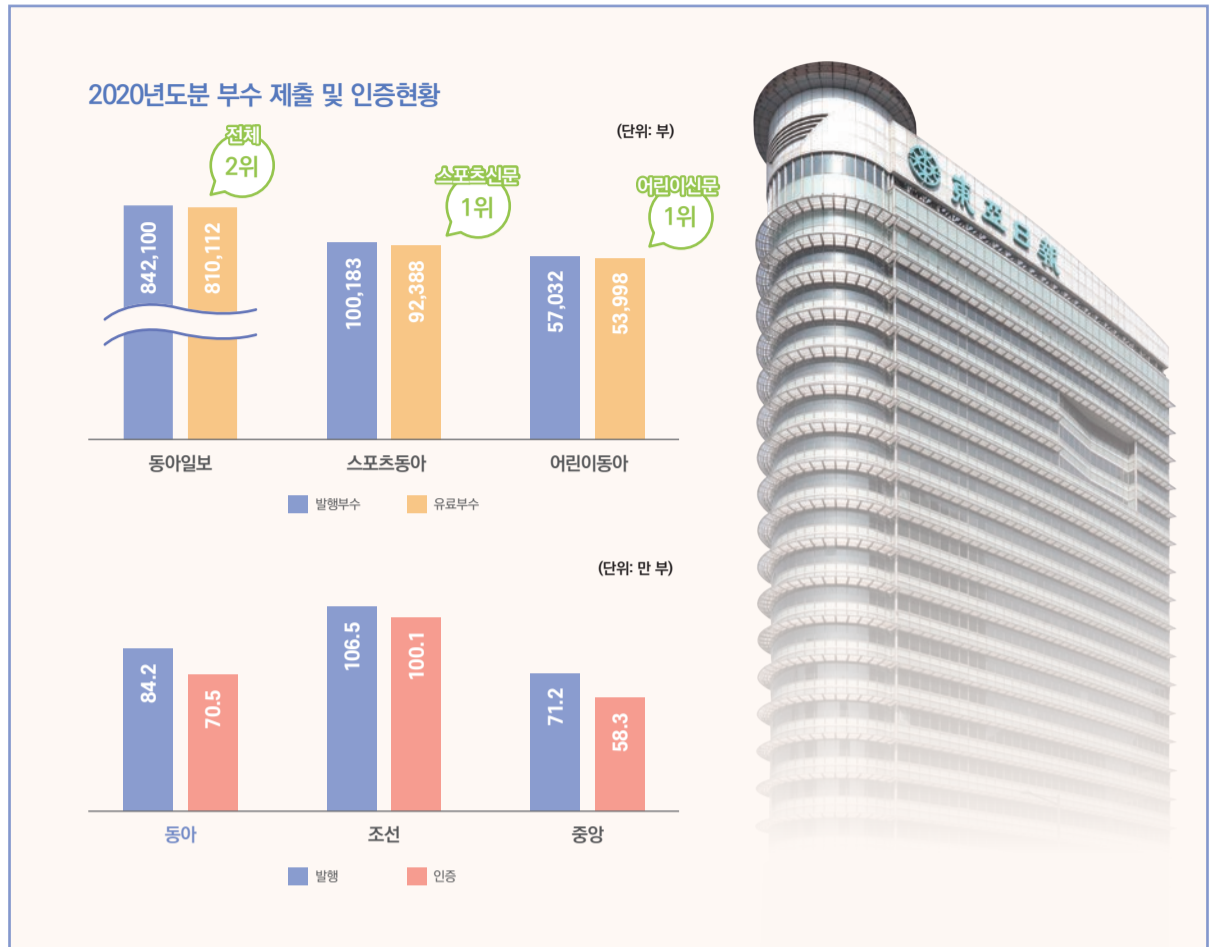
동아일보는 2016년 신문발행 부수 2위에 오른 뒤 3위인 중앙일보와 유료부수 격차를 매년 벌리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동아일보와 중앙일보의 격차는 발행부수 13만479부, 인증 유료부수는 12만2646부로 나타났다. 반면, 조선일보와의 차이는 매년 줄어가고 있어 이 추세가 유지 된다면 일간지 양강체제가 더욱 견고해질 전망이다.

스포츠동아(유료부수 8만2352부)는 스포츠신문 가운데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스포츠서울은 6만5362부, 스포츠조선은 6만

코로나19도 꺾지 못한 성과

동아일보가 ABC협회 인증 유료부수에서 5년 연속 2위를 차지한 것은 녹록지 않은 환경에서 이뤄낸 값진 성과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대면 영업이 막혀 신규독자 확보가 매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또 소비심리마저 위축돼 기존독자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하지만 동아일보 본사와 독자센터의 협력을 통해 기존 독자를 유지하는 한편, 콜센터 등을 통해 신규 독자 발굴에 주력했



다. 콜센터와 독자센터가 접근하지 못한 곳은 편집국 사무원들이 동아패밀리센터(DFC) 사원확장을 통해 힘을 보탤었다. 여기에 2020년 하반기 재연결 캠페인까지 이어지면서 독자 발굴이 큰 힘을 얻었다. 마케팅본부는 동아일보 투입력이 열세인 지역을 정밀하게 분석해 집중 공략했다. 그 결과 경쟁사를 제치고 1위로 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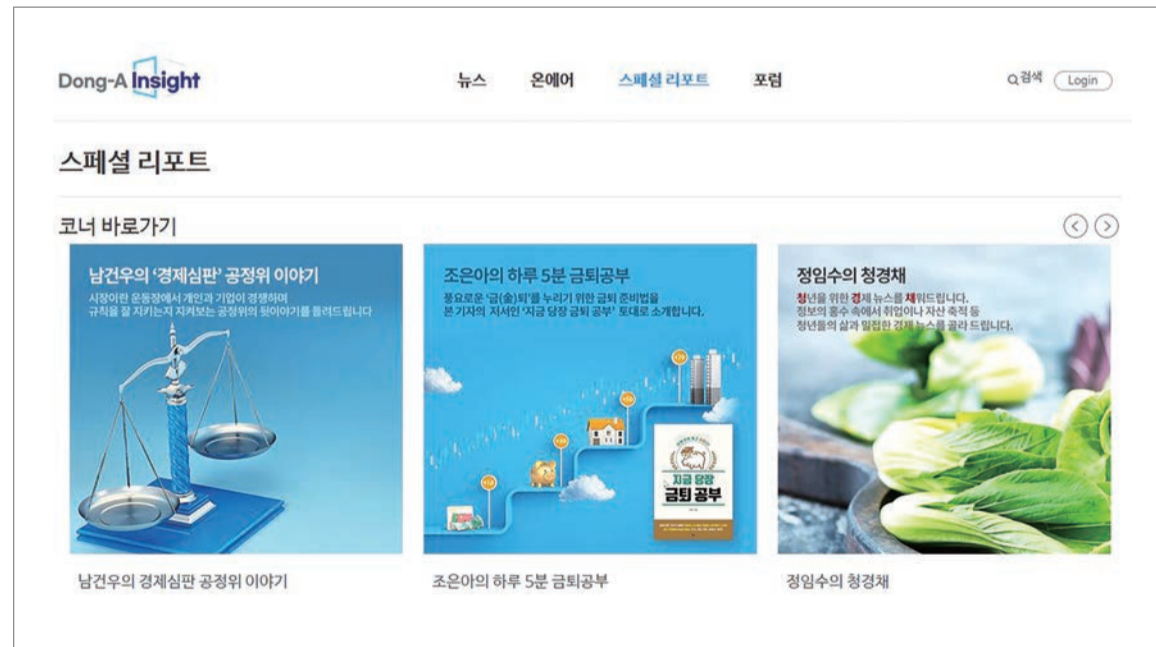
서는 지역이 늘었다. 다양한 마케팅 홍보물도 활용했다.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은 독자들을 위해 사설·칼럼모음집을 활용했다. 사설·칼럼모음집은 타사에 없는 본보의 히트 제작물로, 일부 학부모들은 미용실에서 사설·칼럼모음집을 보고 동아일보 구독을 문의해오기도 했다. 취업을 준

비하는 대학생들도 구입 방법을 문의하는 등 신규 독자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마케팅본부는 올해도 독자센터와 상생하며 독자 친화적 마케팅을 끊임없이 연구 중이다.

경영지원국 총무팀 이흥규

동아일보 경제·금융·지식 플랫폼 ‘동아인사이트’ 오픈

본보 경제부 기자, 경제 전문가들의 ‘스페셜리포트’ 만날 수 있어



동아일보가 운영하는 경제금융 지식 플랫폼 ‘동아인사이트(www.dongainsight.com)’가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동아인사이트는 비대면 환경에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전파하는 회원제 지식플랫폼이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최하는 경제·금융 포럼, 콘퍼런스 등 행사 안내와 참가자 등록, 온라인 생중계 등도 이 플랫폼을 통해 이뤄진다. 동아인사이트는 본사가 2월 25일 주최한 ‘2021 동아 인포섹—정보보호 콘퍼런스’ 때 임시로 운영된 바 있다. 그 후 3개월의 준비 작업을 거쳐 행사 때마다 별도 개설해야 했던 사이트를 회원제 방식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게 만들었다. 5월 27일 열린 ‘2021 동아국제금융포럼’ 때는 미국 실리컨밸리와 뉴욕, 서울을 잇는 현장 중계를 통해 폴 밀그램 스탠퍼드대 교수의 기초강연과 월가 전문가들의 재테크 강연 등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동아인사이트 회원에 가입하면 경제금

용 포럼과 각종 재테크 영상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또 본보 기자와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이 전하는 지식 콘텐츠인 ‘스페셜 리포트’를 만날 수 있다. 현재 세계적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문기관인 아래베스크가 ‘ESG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글로벌 ESG 동향과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를 출입하는 남건우 경제부 기자가 신문에서는 접할 수 없는 공정위의 뒷이야기를 전하는 ‘공정위 이야기’를 연재 중이다. 이와 함께 정임수 경제부 차장은 주요 경제뉴스 키워드를 소개하는 ‘청경채(청년들을 위한 경제뉴스를 채워드립니다)’를, 조은아 경제부 차장은 직장인 재테크 전략을 다루는 ‘하루5분 금회공부’를 게재하고 있다. 동아인사이트는 지식 콘텐츠를 확대해 회원 대상의 뉴스레터 서비스도 진행할 예정이다.

편집국 경제부 정임수

문병기, 유승진, 이상훈, 김민지...워싱턴-도쿄특파원 선발



(왼쪽부터) 편집국 문병기 차장, 유승진 워싱턴특파원, 편집국 이상훈 산업1부 차장, 보도본부 김민지 외교안보국제부 차장

동아미디어그룹은 지난달 24일 인재육성위원회를 열어 워싱턴과 도쿄 특파원을 선발했다. 3년 임기의 워싱턴 특파원은 동아일보 편집국 문병기 차장(연수)으로 결정됐다. 올해 말 임기 만료 예정인 이정은 특파원의 뒤를 이을 예정이다. 단기 특파원인 유승진 특파원은 임기

가 1년 연장됐다. 유 특파원은 2023년 1월까지 채널A 뉴스를 대표해 미국발 소식을 전한다. 도쿄 특파원도 새 얼굴로 바뀐다. 도쿄 특파원 겸 지국장으로는 편집국 이상훈 차장(산업1부)이 선발됐다. 박형준 특파원의 본사 복귀에 맞춰 내년 1월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이번 선발부터 도쿄 역

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장기(3년) 1명, 단기 1명 체제로 바뀌었다. 김범석 특파원의 후임으로 뽑힌 채널A 보도본부 김민지 차장(외교안보국제부)은 이에 따라 첫 도쿄 단기 특파원으로 부임하게 된다.

경영전략실 인재경영팀 남하나

<힌두교 축제>

채널A 창사 10주년 특집 다큐 <지구는 엄마다>...세계 최초로 '네페' 카메라에 담아

2부작 특별 편성...코로나19 속 눈과 귀로 떠나는 여행

채널A가 창사 10주년을 맞아 다큐멘터리 '지구는 엄마다'를 공개한다. '지구는 엄마다'는 발리의 위대한 침묵 '네페(Nyepi)'를 최초로 카메라에 담은 것이다. 네페는 발리에서 모든 것이 멈추는 날로, 힌두교에서 따르는 사카 달력의 새해 첫 날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슬람교도가 대다수이지만 발리에서는 주민의 85%가 힌두교를 믿는다. 이날은 관광객들조차 숙소에서 나올 수 없고 응급실만 예외다. 사람들은 집에서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의 하루를 보낸다.

"우리는 지구에서 태어나 엄마 지구의 축복과 사랑 속에서 살아간다. 땅위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위의 무언가를 짓밟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엄마 지구를 위해 1년에 단 하루,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발리의 힌두 사제 꼬뚜 자티는 '네페'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한다. 발리인들은 지구를 엄마라고 부르며, 새해 첫 날 엄마 지구에 대한 감사 기도로 24시간을 채우는 것이다.



네페를 최초로 담은 채널A 다큐 '지구는 엄마다'



모든 것이 멈추는 날, '네페 데이' 전후의 발리

모든 것이 멈춘 하루이기에 이방인이 '네페'를 카메라에 담기란 쉽지 않다. 하지

만 오랫동안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온 김영 감독은 4년 동안 발리에 체류하며 섬의 이상한 새해 첫 날을 알게 됐다. 그는 발리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매년 조금씩 네페를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고, 세계 최초로 다큐멘터리 2부작을 완성할 수 있었다.

카메라에 담긴 '네페 데이 (Nyepi Day)'는 소리가 없다. 거리를 순찰하는 경찰이 간

간이 보일 뿐이다. 침묵의 낮이 지나고 어둠이 내려앉은 후, 인간의 빛이 꺼진 하늘에 신의 빛 은하수가 흐른다. 보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그곳에 있다. 네페 데이 전후 신들의 섬 발리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축제도 풍성하게 소개한다. 물, 바람, 나무 등 생명을 키우는 모든 대상에게 마음을 담은 발리인들의 기도도 화면

을 가득 채운다. 펜데믹의 긴 터널을 통과하는 지구인에게 발리인들이 보내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있다.

10주년 프라임 다큐 '지구는 엄마다'는 6월 26일 토요일 밤 9시 50분 1부 '네페'에 이어 7월 3일 2부 '이부쿠'가 방송된다. 편성전략본부는 방송에 앞서 6월 24일 광화문 시네큐브에 기자단과 발리를 좋아하

는 이들을 초청해 시사회를 가졌다.

누군가는 보랏빛 선셋을 잊지 못하고 누군가는 부드럽게 밀어주는 파도의 속살을 잊지 못하는 신들의 섬, 발리. 코로나19 속 막힌 하늘 길 밑에서 이렇게라도 발리로 떠나 보자.

편성전략본부 윤정화

채널A 리포트 <끝보리>...바뀔 때까지 파헤치겠습니다

화제성과 심층성 두루 갖춰...보도 아이템 사회적 어젠다로 급부상

채널A 메인뉴스가 새롭게 선보인 '끝보리(끝을 보는 리포트)'가 보도본부에 신선한 자극을 주고 있다. 끝보리는 보도 일정이나 리포트 꼭지 수를 미리 정해놓지 않고 우리 사회 문제들을 바뀔 때까지 파헤치고 보도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일시적이거나 단편적인 사건 보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안 제시와 함께 실질적인 제도 변화까지 이끌어내는 게 목표다. '끝보리'라는 이름도 '한번 보도한 문제는 끝을 보겠다'는 의미에서 탄생한 것이다.

끝보리 보도주제는 일반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건 중에서 뽑았다. 지난달 3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논란을 다룬 데 이어 10일부터는 '유기견 관리 대책'에 대한 보도를 시작했다.

수술실 CCTV 설치 논쟁은 올 3월 탐사보도팀이 단독 보도한 '신촌세브란스 병원 의료사고'와도 연관된 이슈다. 보도 이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과정에서 CCTV의 필요성이 불거지며 사회적 찬반이 나뉘었기 때문. 이와 관련해 임도현 편집부장은 "반복되는 환자들의 의료사고와 의료진에 대한 과도한 책임 추궁을 모두 해결할 사회적 공감대를 찾고 싶었다"고 말했다. 취재진은 CCTV 설치를 통해 수술실 정보에 접근하고 싶어 하는 환자 단체의 목소리는 물론 환자의 정보와 영상 기록 해킹 사례, 병원종사자의 인권 침해 우려 목소리 등 선부른 설치를 반대하는 쪽의 목소리를 편견 없이 들었다. 이와 관련한 외국의 사례들도 참조해 보도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두 번째 끝보리 주제로 정한 유기견 관리 대책은 남양주에서 있었던 유기견 물림 사망 사고에서 출발한 것이다. 버려진 반려견이 유기견이 되어 인간의 목숨을 위협하는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 사건 현장과 유기견 보호소, 경찰, 전문가 취재를 두루 진행했다. 이슬 사회부 기자는 "유기견 등록제 강화 등 제도 개선의 결과물을 얻는 게 목표"라며 "눈에 보이는 변화를 얻을 때까지 관심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보리는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다. 수술실 CCTV 보도는 탐사보도팀을 주축으로 사회부와 정치부가 머리를 맞댔다. 유기견 보도는 사회부의 주도



부서 간 협업의 산물을 담은 '끝보리'

아래 정치부가 함께 참여 중이다. 해외 전문가 인터뷰와 선진국 취재는 외교안보 국제부가 돕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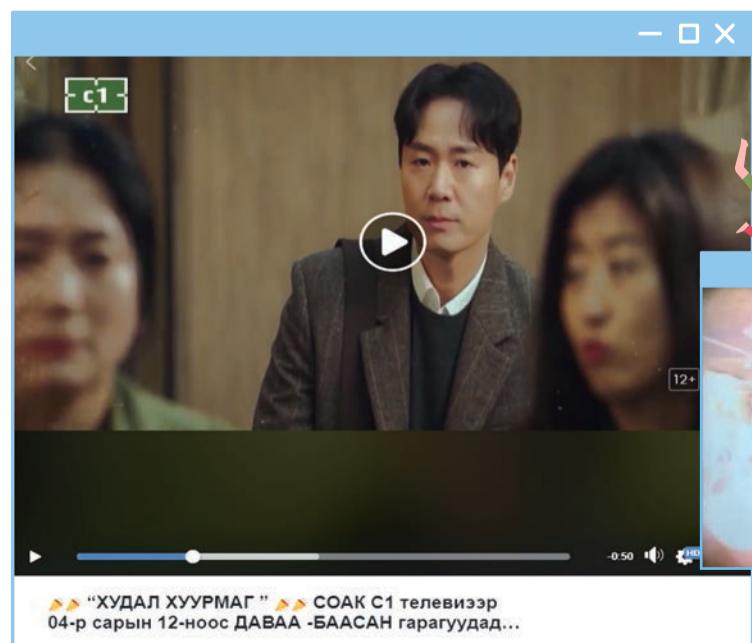
보도본부는 하반기 중 화제성과 심층성을 두루 갖춘 보도 주제를 두 개 이상 추가 발굴해 끝보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채널A뉴스 유튜브에는 끝보리 재생목록

을 만들고,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는 연재물로 등록할 계획이다. 끝보리가 출범 10주년을 맞은 채널A 뉴스의 간판코너로 자리 잡도록 보도본부의 고민과 열정, 패기를 담을 것이다.

보도본부 경제정책산업부 허욱

채널A 드라마, 신시장 진출 탄력

몽골과 호주, 터키 등 한류 신흥 시장 공략



몽골 배급사에 판매된 채널A 콘텐츠

채널A가 몽골과 호주, 터키 등 한류 신흥시장을 적극 공략하며 해외시장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 채널A 드라마의 신시장 진출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채널A 콘텐츠세일즈팀은 최근 몽골 배급사 콘텐츠 미디어 매니지먼트(Content Media Management:CMD)에 드라마 '거짓말의 거짓말', '터치', '유별나 문세프', '평양 오 후 세시의 연인'에 이어 예능 '금쪽같은 내 새끼'를 판매했다. 특히 '금쪽같은 내 새끼'는 교육열이 높고 청소년의 대학 진학률이 증가하고 있는 몽골의 사회적 특성이 반영돼 수출이 성사됐다. 4월 중순 드라마 '거짓말의 거짓말'이 몽골 케이블 방송국 C1에서 방영된 것에 이어 계약이 체결된 채널A 작품들이 앞으로 순차적으로 방송될 예정이다.

한국 콘텐츠의 불모지로 알려진 호주에서도 채널A 드라마 계약이 체결됐다. 호주의 민영 방송사인 스페셜 브로드캐스팅

서비스(Special Broadcasting Service:SBS)와 '거짓말의 거짓말' AVOD 권리 독점 계약을 맺은 것. 아시아 작품 수입률이 극히 낮은 호주 현지 방송사에서 한국 드라마를 구매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작품은 VOD서비스 플랫폼인 SBS 온디맨드에서 7월 중 서비스 된다.

한편, '거짓말의 거짓말'은 터키의 Calinos Enter&Hece Medya와도 포맷 리메이크 옵션 계약을 맺었다. 2019년 '천상의 화원 공배령'이 중국과 리메이크 계약을 맺은 이후 두 번째다. 터키 권역 리메이크는 하반기 중 제작 예정으로, 채널A 콘텐츠 IP가 더욱 글로벌화 되게 됐다.

상반기에 방영된 컬러 콘텐츠 '강철부대', '프렌즈'도 잇따라 해외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채널A는 해외 수출 판로 확대를 통해 글로벌 콘텐츠 시장 선점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콘텐츠사업본부 콘텐츠세일즈팀 김혜성

New face

새 식구를 소개합니다 이름 / 부서 ① 입사 후 포부 ② 요즘 관심사 ③ 최종 직장



최동수 / 동아일보
편집국 산업2부 기자

- ① 겸손한 자세로 배우고, 취재하고, 쓰겠습니다. 선후배 동료들과 함께 좋은 기사를 쓸 수 있다면 제게 큰 기쁨일 것 같습니다.
- ② 건강입니다. 걷기 시작한 아이와 놀아줄 수 있는 체력을 키우기 위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 ③ 머니투데이



공승배 / 동아일보
편집국 사회부
인천취재본부

- ① 제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젊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젊음을 바탕으로 '현장에 있는 기자'가 되어 동아일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은 언론사'로 나아가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 ② 최근 수도권 지역의 최대 현안인 '수도권매립지' 문제와 관련해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 4년간 수도권매립지를 취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갈등 현안을 보다 면밀히 분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③ 경인일보



김화영 / 동아일보
편집국 사회부
부산경남취재본부
(채널A 보도본부 겸직)

- ① 당장은 바쁜 조직에 서둘러 적응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상을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드는 기사 작성 같은 성과는 그 이후 낼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 ② 달리는 것을 즐깁니다. 산에 오르는 것도 좋아합니다. 돌을 함께 하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코로나19 종식 후 동우님을 부산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천천히 오르고 달리며 구석 구석 소개하고 싶은 곳이 많습니다.
- ③ 국제신문



최창환 / 동아일보
편집국 사회부
부산경남취재본부
(채널A 겸직)

- ① 십여 년간 기자생활에서 동아일보는 제게 좋은 기사의 본령을 알려주는 지침서이자 기자로서 갈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이었습니다. 훌륭한 선후배분들을 본보기로 삼아 더욱 권력을 견제하고 행정이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길을 제시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애독자에서 이제는 지면을 함께 만드는 일원이 되겠습니다.
- ② 새로운 출입처가 있는 경남도와 18개 시군에 관심을 갖고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인 9세 딸과 6세 아들이 있어 교육문제에 관심이 많고, 미식 여행도 좋아합니다.
- ③ 경상일보



김정래 / 동아일보
마케팅본부
지원팀 전략파트

- 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회사로 출근할 생각에 가슴 설렘 수 있도록, 언제나 긍정적인 마인드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 ② 강철부대에 푹 빠져있습니다. 본방 사수는 물론 유튜브 콘텐츠와 SPAO, 닭가슴살,부대찌개 등 클라보 상품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 ③ 중앙일보M&P



김지현 / 동아일보
마케팅본부
지원팀 기획파트

- ① 고되고 힘든 길을 걷다 보니 '동아일보'라는 꽃길에 오게 된 김지현입니다.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그동안 겪었던 어려운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떠올랐습니다. 힘든 기억들을 발판 삼아 지금부터는 새로운 장을 펼쳐 동아일보와 함께 성장하는 이야기를 써나가고 싶습니다.
- ② 골프의 매력에 빠져있는 4년차 초보 골퍼입니다. 본인이 노력한 만큼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성취감에 매료되면서 취미생활로 즐기게 되었으며, 현재 주 1~2회 스크린골프를, 월 1회 정도 필드 라운딩을 즐기고 있습니다.
- ③ 중앙일보M&P



문선영 / 채널A
경영전략실
1theCS쿼드

- ① 따뜻한 그렇지만 웃을 수 있는, 즐거운 콘텐츠를 만들어보겠습니다.
- ② 시간날 때마다 정주행. 다양한 라마나 예능 정주행하기!
- ③ JTBC STUDIO



임선영 / 채널A
편성전략본부
편성기획팀

- ①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해, 채널A에 기여할 수 있는 일원이 되겠습니다.
- ② '체력 증진과 다이어트' 목적으로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 ③ 재능방송



최화정 / 채널A
편성전략본부
콘텐츠별류업팀

- ① 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고, 채널A 콘텐츠의 가치를 시청자에게 잘 전달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② 평소 기상 시간보다 10분 일찍 일어나,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고자 노력 중입니다. 아직은 눈만 뜨고 있지만(ㅎㅎ) 앞으로 운동도, 독서도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 ③ 프레인글로벌



민정아 / 채널A
드라마플러스본부
드라마플러스3팀

- 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오래 남을 수 있는 드라마를 만들겠습니다.
- ② 일상을 기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창한 일기가 아니라라도 계속 메모하고 글을 쓰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 ③ 스튜디오드래곤 프리랜서



김태욱 / 채널A
보도본부 사회부

- ① 기존 10년과는 또다른 모습으로 새로운 10년을 채워나가겠습니다.
- ② 중국 드라마 보는 재미가 생겨, 중국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 ③ 채널A 프리랜서



홍지은 / 채널A
보도본부 사회부

- 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취재해 양질의 기사 많이 쓰겠습니다.
- ② 역기 운동을 즐겨하는데 최근 데드리프트 110kg과 카펫 풀업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 ③ 뉴시스



전찬우 / 채널A
전략기획본부
사업기획팀

- ① 꾸준한 자세로 업무와 인간관계, 두가지 모두 이뤄내겠습니다!
- ② 강철부대 최고! 강철부대 화이팅! 대한민국 군인 화이팅!!
- ③ 뉴시스



문세연 / 채널A
콘텐츠사업본부
플랫폼비즈팀

- ① 급변하는 미디어시장에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센스있게 업무를 처리하는 '채널A 대표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 ② 건강한 다이어트입니다. 목표 소모 칼로리를 선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애플워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 ③ 스포티비



강혜빈 / 채널A
콘텐츠사업본부
콘텐츠세일즈팀

- ① 채널A의 더 높은 비상을 위해 매사에 긍정과 열정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채널A인이 되겠습니다.
- ② 광화문 일대 맛집과 핫플레이스를 알고 싶습니다. 관심은 곳이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③ YTN



임경선 / 채널A
콘텐츠사업본부
전략커뮤니케이션팀

- ① 채널A가 가장 영향력있는 방송미디어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온 힘을 쏟겠습니다.
- ② 주말에 테니스를 즐기고 있습니다. 동우인과 테니스 한편하고 싶습니다~
- ③ CJ ENM



동아미디어그룹 식구들의 신작 소개합니다

<마지막 황제 푸이와 다섯여인> _ 구자룡 동아일보 논설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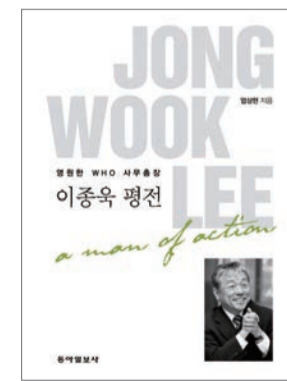


진시황 이래 500여 명 중국 역대 황제 시대의 마침표를 찍은 청 선종제 푸이의 삶과 인간적 면모를 전한다. 국내에는 번역 소개되지 않은 푸이 자신의 자서전과 부인 동생 삼촌 조카 태감(태관)등 푸이의 일생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인물들의 기록, 그리고 왕창상 등 중국

의 대표적인 푸이 연구자들의 저작을 기본 자료로 삼았다. 푸이가 태어난 순친왕부, 황궁 썩진청, 만주국 황제로 가기 전 7년간 머물렀던 텐진의 별장, 창종의 만주국 황궁, 유골이 인치된 허베이성의 묘지 등 현재 남아있는 현장의 흔적을 추적했다. 푸이는 일제 대륙 침략의 앞잡이기도 했지만 스스로도 일본의 힘을 빌어 황제 복위의 헛된 꿈을 꾸었던 과정을 자세히 소개한다.

시사주간 타임은 시진핑 주석을 옹정황제에 비유했다. 푸이는 1967년 사망했으나 중국에서 황제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말이 나온다. 이 책은 '중국에서 황제의 시대는 끝났는가'라고 물으면서 '먼저 마지막 황제가 어떻게 왔다 갔는지 보자'며 푸이를 찾아 나선 기록이다.

<이중욱 평전> _ 엄상현 출판국 콘텐츠비즈팀 차장



'만약 그가 살아 있다면 어떻게 대처했을까?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을 막을 수는 없었을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은 세계보건기구(WHO) 제6대 사무총장 고(故) 이중욱 박사를 소환했다. 코로나19 발병 초기 WHO가 초기 대

응에 실패하고 국제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휘말리자 이중욱 박사 에 대한 재평가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기 때문이다. 2003년 한국인 최초로 국제기구 수장에 오른 이중욱 박사는 2006년 5월22일 세계보건총회 당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출판국 콘텐츠비즈팀 엄상현 차장은 이중욱 박사의 연설담당비서였던 데스먼드 에버리(Desmond Avery)가 2012년 출간한 평전을 토대로 이중욱 박사가 한국에서 보낸 어린 시절과 학창시절, 한국의 관료 또는 정치인과 얽힌 뒷얘기를 추가로 충실히 취재하고 조사해 새로운 평전을 펴냈다. 이 과정에서 기존 평전의 소소한 오류와 일부 잘못된 기재된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아무튼 사이월드> _ 박선희 동아일보 산업2부 차장



1999년 처음 등장해 많은 이의 사랑을 받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토종 소셜미디어 '사이월드'. 하이텔과 나우누리부터 아이러브스쿨, 세이클럽, 프리챌까지 각종 플랫폼의 헤비 유저를 자처했던 편집국 산업2부 박선희 차장이 사이월드를 바로잡았다.

그곳에서 울고 웃으며 쌓은 우정과 호의, 연대의 경험을 한 권의 책으로 풀어냈다. 세밀한 기억을 바탕으로 길어올린 사적 경험에 여러 통계와 자료를 보태 그때 그 시절을 '지금 여기'로 생생하게 불러온다. 영국인 친구를 사이월드에 가입시킨 기억, 대학생 때 올린 사이월드 BGM(배경음악)을 아이 엄마가 돼 들었을 때의 이질감 등을 발랄하고 유머러스하게 썼다. 사이월드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세대라면 책을 통해 '그땐 그랬지'라며 피식 웃게 된다. 도토리로 배경음악을 바꾸고, 오글거리는 글을 올렸던 풋풋한 기억을 소환하는 것도 덤이다.

